

영광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장륙습지 국가보호지역 지정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 환경단체 사업계획 발표

2020 광주·전남 환경 최대 이슈

무등산 공군부대 철수
'시민햇빛발전소' 3호기 건립

2020년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의 화두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장륙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무등산 공군부대 철수 등이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빛 원전에서는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도달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 넘는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있는 한빛원전

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와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또 자연녹지를 파괴하는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보존이 결정된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전개된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장륙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륙습지는 멸종위기 생물 4종을 비롯해 총 820종의 생물종이 서식중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결정되면 환경부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 복원도 이뤄진다.

단체들은 또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활동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교육센터를 창립해 다양한 환경프로그램과 시민강좌를 개최하며,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는 어린 환경 파수꾼을 양성하는 청소년환경학교와 무등산사랑환경대학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무등산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철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체 관계자는 "국방부가 2017년 철수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무등산을 하루 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인 기후환경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열 발전소를 시민참여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추진하는 '시민햇빛발전소'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열 발전소를 시민들이 참여해 운영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1·2호기를 운영중이며, 올해 3호기 건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등산 일부 탐방로 산불방지 위해 출입통제

서석대~천왕봉~누에봉 등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은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등산 등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등산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석대~천왕봉~누에봉 구간,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구간, 소태제~마집봉갈림길 구간, 풍암주차장~광일목장길, 도원야영장~마당바위 구간,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등 6개 구간을 통제한다.

지리산 통제 구간은 같은 기간 노고단 고개~장터목 구간, 치밭목~천왕봉 구간, 두지동~천왕봉 구간, 불일폭포~삼신봉 구

간 등 25개 구간이다. 월출산도 같은 기간 무위사~미암재 구간, 용암사지~흥계골 구간 등 2개 구간, 내장산은 구암사~헬기장 등 3개 구간이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원공단은 산불 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CC-TV 412대를 이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흡연, 인화 물질 반입, 통제 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되며 국립공원에서 흡연이나 통제 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천연기념물 황새 2마리 진도 들녘에서 확인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2개체(사진)가 전남 진도군 근대면 한 들녘에서 확인됐다.

황새모니터링네트워크는 지난 8일 근대 들녘에 모습을 보인 이 황새는 11월까지 먹이활동을 하며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를 찾은 황새 중 인식표 C71을 단 개체는 지난해 8월 충남 예산군 봉산면 육전리 방사장에서 방사된 것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황새가 머무는 들녘은 오염이 되지 않고 먹이 활동 등 서식여건이 좋다"며 "길조인 황새가 진도를 찾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귀종 철새인 황새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원 30주년 다양한 사업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차은선)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90년 2월 전국 최초로 개관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센터는 지난 30년 간 청소년상담·부모교육·또래상담자 양성·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광주지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한 청소년 선도사업도 진행하고 있

다. 차은선 센터장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한 꿈을 키워나가는 '꿈꾸는 청소년, 움직이는 지역사회,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수산부, 바다식목일 대국민 공모전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0일 '제8회 바다식목일'을 앞두고 바다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잘 표현한 주제어와 교육·체험 교구 아이디

어 등을 공모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행사에서 활용된다.

특히 공모 아이디어로 제작한 교육·체험 교구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배포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수공통전염병 광주·전남 안전지대 아니다

야생 박쥐서 코로나 검출

광주·전남지역 야생박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한국도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5월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야생박쥐 코로나바이러스 감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야생박쥐의 사체와 배설물, 구강 내 샘플 100개를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13개, 광주는 1개의 샘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조사를 통해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에서는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폐광(廢鑛)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터전을 잃은 박쥐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이 박쥐와의 접촉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또 이번 연구를 통해 검출된 바이러스들은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들로 국내에서도 언제든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필라테스하면서 대사증후군 완치하세요."



광주시 남구 '오병 통치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시 남구는 '오병 통치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

11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병 통치교실 참가자 모집이 진행된다.

오병 통치교실은 필라테스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의 주된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 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오병 통치교실은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운영 시기가 변경됐다. 상황이 종료된 후 구체적 운영시기는 결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병 통치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스스로가 신체활동 및 건강교육을 통해 위험요인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MERITZ 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삼성생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 AIG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AXA | BNP PARIBAS CARDIF | The K 손해보험 | 전국버스공제조합 | 전국외국인자동차공제조합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K TMA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